

꿀찌, 전교 회장에 당선되다!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이토 미쿠 글 / 김명선 그림 / 고향옥 옮김



표지 탐색하기

<꿀찌, 전교 회장에 당선되다!>를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꿀찌, 전교 회장에 당선되다!'를 보고, 떠올린 생각은 무엇인가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책 뒷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꿀찌 스스로 만들어 낸 멋진 한판!

이 책의 주인공인 라이타는 학교는 즐거운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교 어린이 회장에 출마합니다. 즐겁다는 것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와, 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학년에 상관없이 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꿀찌 라이타가 생각하는 학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닌 모두가 주역이 되는 학교로 만드는 것, 이것이 라이타가 원하는 학교입니다. 과연 꿀찌 라이타는 전교 어린이 회장이 되어 이런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요?

① 꿀찌 '라이타'가 생각하는 학교는 어떤 것인가요?

⇒

② 꿀찌 '라이타'가 원하고 만들고 싶은 학교는 어떤 모습인가요?

⇒



꿀찌, 전교 회장에 당선되다!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이토 미쿠 글 / 김명선 그림 / 고향옥 옮김



어휘력 쑥쑥 키우기

<꿀찌, 전교 회장에 당선되다!>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구와하라한테도 빨리 인계할 수 있도록 말해 둘게.”

- 더는 이기죽거리는 말투가 아니었다. 아주 따뜻한 느낌이다.
- “오빠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정직하고 직선적이었어.”
- 재잘거리는 소리, 거기에 웃음소리와 고함까지 뒤섞여 체육관 안은 북새통이었다.
- 여자애들은 마키노만 보면 꺅꺅 소리치지만 정작 본인은 심드렁한 얼굴이다.

(나) · “㉠□□□□적으로 말하겠는데, 나는 요코야마 라이타가 전교 어린이 회장에 입후보해 쫓으면 한다.”

- 엄마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했다.
- “요코야마 라이타, ㉢□□□□입니다. 이왕 나왔으니, 인사 한마디.”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기본형)의 뜻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세요.

- ① 이리저리 둘러대지 아니하고 곧바로 하다.
- ② 하던 일이나 물품을 넘겨주거나 넘겨받다.
- ③ 자꾸 미스스럽게 지껄이며 짓궂게 빈정거리다.
- ④ 마음에 탐탁하지 아니하여서 관심이 거의 없다.
- ⑤ 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석이는 상황이다.

2) 다음 뜻을 참고하여 (나)의 빈칸 ㉠~㉢에 들어갈 낱말을 쓰세요.

- ㉠ : 혼자서 칼 한 자루를 들고 적진으로 곧장 쳐들어간다는 뜻으로, 여러 말을 늘어놓지 않고 바로 요점이나 본문제를 중심으로 말함을 이르는 말.
- ㉡ : 손뼉을 치며 크게 웃음.
- ㉢ : 격려나 응원 따위에 자극을 받아 힘이나 용기를 더 냄.



꿀찌, 전교 회장에 당선되다!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이토 미쿠 글 / 김명선 그림 / 고향옥 옮김



어휘력 쑥쑥 키우기

<꿀찌, 전교 회장에 당선되다!>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그럼, 어쨌든 ()라는 거네.” / “()가 뭔데?”

• “전교 회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게 ()이란 거야.”

• “어쨌든 마키노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건 분명해. 실적으로 보나 ()로 보나.”

• “우선, 기본 ()은 지금처럼 가는 걸로. 인사 활동도 느낌이 좋으니까.”

• “딱히 ()이 있는 거 같지도 않은데, 신기하게 라이타 주위에는 사람이 몰려들어.”

(나) “나루미. 넌 어떻게 생각하지? ㉠동기나 ㉡계기, 그런 거 제쳐두고, 요코야마 라이타가 전교 회장이 되면, 신날 거 같지 않아?”

1) (가)의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지명도 :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정도.
- ② 적자 :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생기는 결손액.
- ③ 리더십 :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
- ④ 선입관 :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
- ⑤ 노선 : 개인이나 조직 따위가 일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향해 나가는 견해의 방향이나 행동 방침.

2) (나)의 ㉠~㉡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은 것이다. 알맞게 짝을 지으시오.

- ㉠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
- ㉡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



꿀찌, 전교 회장에 당선되다!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이토 미쿠 글 / 김명선 그림 / 고향옥 옮김



성가신 부탁을 받다 / 무슨 소리냐고!

<꿀찌, 전교 회장에 당선되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런 일은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나같이 내가 발끈해서 생긴 결과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일 뿐이다. 그런 나에게 엄마는 만날 “이걸 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나서 행동해.”라고 잔소리하고, 소꿉친구인 나루미 치카는 “참 바보 같다!”라고 한심해 한다.

그럼, 무시당하고, 나를 깔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란 거야? 나에게 도전장을 내미는데 도망치라는 거냐고?

싫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나는 점박이를 안은 채 힘껏 뛰었다.

아무리 풀 죽어 있어도, 고민을 해도, 도망쳐도, 쌀값은 돌아오지 않는다.

(나) “어른들이 생각하는 똑똑한 애나, 말 잘 듣는 애는 안 돼.” / “뭐어?”

“틀에 박힌 일을 할 수 있다고 회장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학교란 데는 좀 더 가슴 설레는…….” 신도 형은 별안간 말을 멈췄다.

“누구든, 어떤 녀석이든, 학교 어딘가에 자신이 있을 곳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해. 그런 학교는 어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냐. 마키노도 아니고. 나는 요코야마 라이타 같은 녀석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가)에서 대립하고 있는 등장인물의 말과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 **엄마** :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라며 잔소리함.
• **나루미** : 참 바보 같이라며 한심해 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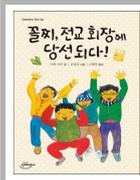
• **‘나’** :

2) (나)에서 ‘신도 형’이 생각한 회장의 자격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X : 어른들이 생각하는 똑똑한 애나 말 잘 듣는 애, 틀에 박힌 일을 할 수 있는 애가 회장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함.

⇔

O :



꿀찌, 전교 회장에 당선되다!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이토 미쿠 글 / 김명선 그림 / 고향옥 옮김



작전 회의 / 멋진 건 어려워

<꿀찌, 전교 회장에 당선되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다. 애초부터 나에게는 훌륭한 뜻 같은 건 없었다. 그냥 의뢰가 들어와 얼떨결에 입후보해 버린 거니까. 당연한 거지만, 어차피 할 거면 이기기 위해 싸울 것이다. 아무튼 선거 운동하는 시늉만 내고 돈을 받는 건 내 성격과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순진하게 연설에서 솔직히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 “무슨 말을 하면 돼?” / 신도 형에게 묻자, “넌,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지?”라고 되물었다. / “재미있는 학교.”라고 대답했더니,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된다나. / 그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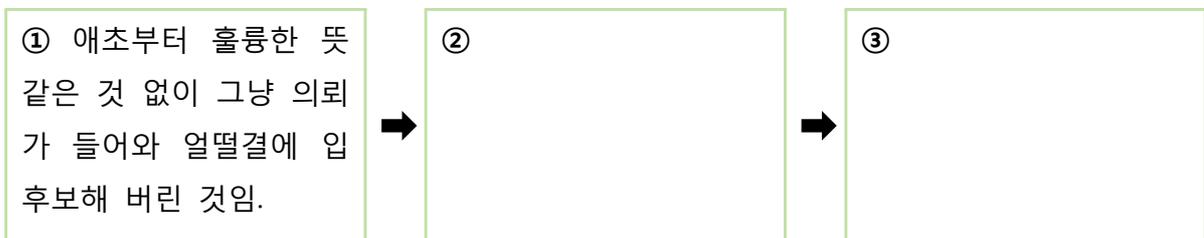
(나) “라이타와 마키노를 비교해서 어쩔 건데? 라이타는 마키노랑 완전 다르니까 재미있는 거잖아.” / 나루미……. 너, 혹시, 지금 엄청 좋은 말 한 것 맞지?

나는 찌금, 가슴이 찡했다. / “생각해 봐. 얼굴이고 공부고, 운동 신경이고, 뭐 하나 마키노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잖아. 분명히 말하지만, 라이타가 마키노 흉내를 내 봐, 그땐 승부가 뻘해.” / 아, 결국 이런 얘기였냐! 나, 진심 상처받은 거 같다…….

“라이타가 대단한 건 말이야.” /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은?

우리 반 애들 모두가 나루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 “엉망진창인 점.”

1) (가)에 나타난 ‘나’(라이타)의 생각의 흐름을 정리해 봅시다. ②~③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2) (나)에서 ‘나루미’가 ‘나’(라이타)에 대해 평가한 말을 1문장으로 요약해 쓰세요.
⇒



꿀찌, 전교 회장에 당선되다!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이토 미쿠 글 / 김명선 그림 / 고향옥 옮김



장차 장관이? / 신도 형의 비밀

<꿀찌, 전교 회장에 당선되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아침 인사를 하는 우리에게 대한 반응이 조금씩 달라졌다. 입을 살짝 움직여 “안녕.” 하고 대답해 주거나, 생긋 웃거나, 먼저 “좋은 아침.” 하고 인사해 주는 애들도 있다. / 유는 중학년 이상의 여자애들에게 엄청 인기를 끌었고, 나와 료스케에게는 묘하게 꼬맹이들이 따랐다. 그리고 조금 의외인 건 닛타. / “6학년 여자애가 나한테 ‘수고한다.’ 그랬어!” / 그렇게 자랑하는 닛타. ㉠닛타에게 말을 건네는 6학년 여자애들이 더러 있는 건 분명하다. 아마, 멋있어서라기보다 저도 모르게 ‘손!’ 하고 장난치고 싶은 반려동물 같은 느낌이 아닐까? 나는 나름대로 그렇게 추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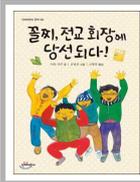
(나) “학교를 바꿔 보지 않을래?”

신도 형이 그렇게 말했다. 분명하게 나에게 말했다. 물론 내가 전교 회장이 된다고 해도 곧바로 학교를 바꿀 수는 없다. 그건 신도 형도 알 거다. 그래도 뭔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다. / 내가 할 수 있을까? / 아니다.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 신도 형을 위해서, 오쿠무라 누나의 오빠를 위해서, 오쿠무라 누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1) (가)에서 ‘나’(라이타)가 ㉠의 심리에 대해 추측한 내용을 찾아 쓰세요.

⇒

2) (나)에서 ‘나’(라이타)는 전교 회장이 된다고 해도 학교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를 바탕으로 ‘나’(라이타)에게 조언하는 말을 써 보세요.



꿀찌, 전교 회장에 당선되다!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이토 미쿠 글 / 김명선 그림 / 고향옥 옮김



우리답게 / 연설로, 사로잡아라!

<꿀찌, 전교 회장에 당선되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나루미. 넌 어떻게 생각하지? 동기나 계기, 그런 거 제쳐두고, 요코야마 라이타가 전교 회장이 되면, 신날 거 같지 않아?” / “…….”

“학교 가는 게 즐겁고, 학교가 신나는 곳. 나는 그런 학교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라이타라면 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해.” 칭찬에 익숙하지 않는 탓인지 나는 몹시 불편했다. / “하지만 그건……, 라이타가 목표로 내걸거나 계획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지. 딱히 리더십이 있는 거 같지도 않은 데, 신기하게 라이타 주위에는 사람이 몰려들어.” 나루미가 나를 보았다.

“그리고 몰려든 녀석들은 즐거워 보이고.”

(나) “전교 회장이란 건 그냥 장식일 뿐이라고. 선생님들이 결정한 걸 신속하게 그대로 추진해 나갈 뿐이야. 말하자면, 걸만 번드르르한 잡무 담당인 셈이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슈퍼 네거티브, 방해 공작. / “그, 그럼, 넌 왜 그런 잡무 담당에 입후보한 건데?” / 나는 당연한 질문으로 반격에 나섰다. / “경력 때문이지.” / “뭐?” / 경력? / “장식품이든 뭐든 전교 회장 정도 해 뒀서 손해날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 말이야, 쓸데없는 일에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라.”

1) (가)~(나)에 나타난 전교 회장에 대한 등장인물의 평가를 정리하여 써 보세요.

(가) 신도 형 :	(나) 마키노 :
------------	-----------

2) (가)~(나)에 드러난 ‘나’(라이타)의 심리 상태를 그 원인과 함께 쓰세요.

⇒ (가) :

(나) :



꿀찌, 전교 회장에 당선되다!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이토 미쿠 글 / 김명선 그림 / 고향옥 옮김



내가 확실히 말할게 / 약속

<꿀찌, 전교 회장에 당선되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한 명이 없으니, 좀 허전한 느낌이 들지요, 마리에?” 마리에에는 울상이 되어 나를 뵈히 쳐다보았다. 마리에가 이렇게 나를 똑바로 쳐다본 건 처음이다.

교장실이 교실이라는 마리에. 하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와서 자기 식으로 인사를 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와의 거리도 좁혀져 가고……. / 앗, 마리에에는 친구를 원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날마다 여기에 오는 게 아닐까? / 그래, 학교란 함께 웃고, 울고, 화내고, 장난치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다. 마리에에게도, 오쿠 무라 형에게도, 료스케에게도……. / 학교란 그런 곳이어야 한다. / 나는 무릎을 구부려 마리에의 얼굴을 보았다. / “괜찮아, 다시 넷이서 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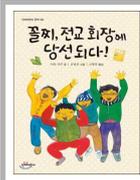
(나) 연설에 익숙해졌다곤 해도, 운동장 구석에서 하는 것과 조용한 곳에서 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된다. 어떻게 긴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지금까지 내가 해 온 연설은 재미와 패기로 관중을 사로잡는 방식이었다. 이제 와서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을 바꿀 수도 없고……. / 안 돼. 이제는 나 자신을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믿고 끝까지 달리는 거다. 그럼 되는 거다.

1) (가)에 나타난 ‘마리에’에 대한 ‘나’(라이타)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① 마리에에는 날마다 와서 자기 식으로 인사하며 조금씩 우리와의 거리도 좁혀져 갔음	➔ ② 마리에에는 _____ _____ _____	➔ ③ 학교란 _____ _____ _____
--	-----------------------------------	---------------------------------

2) (나)에서 ‘나’(라이타)가 연설에 대해 걱정한 내용을 정리하여 써 보세요.

과거 : 운동장 구석에서 하는 것이고, 재미와 패기로 관중을 사로잡는 방식.	➔ 걱정 :
--	--------



꿀찌, 전교 회장에 당선되다!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이토 미쿠 글 / 김명선 그림 / 고향옥 옮김



즐겁다는 것은

<꿀찌, 전교 회장에 당선되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지금 우리 학교는 미래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컴퓨터와 외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탐방과 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과의 교류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깊이 생각하여 제안할 것이며, 리더십을 발휘하여 더욱 훌륭한 우리 학교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키노는 원고를 거의 보지 않았다.

(나) “학교는, 즐거운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즐겁다는 것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와, 또 그 옆에 있는 친구와, 학년에 상관없이 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학교입니다.”

(다)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이어가는 어린이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역이 될 수 있는 학교. 진심으로 그런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 끝났다. 정말로 이제 끝났다. 남은 건, 인사.

1) (가)의 ‘마키노’와 (나)의 ‘나’(라이타)가 생각하는 학교를 찾아 쓰시오.

⇒ (가) 마키노 :

(나) ‘나’(라이타) :

2) 윗글에 나타난 (가)의 ‘마키노’와 (나)~(다)의 ‘나’(라이타)의 연설 내용 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하나를 고르고, 그 이유를 써 보세요.



꽃씨, 전교 회장에 당선되다! (초등 6단계)

단비어린이 | 이토 미쿠 글 / 김명선 그림 / 고향옥 옮김



정답과 해설

예시답안은 모범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1쪽	(예시답안) 1) 성적이 꽃씨인 아이가 전교 회장에 당선되다니 대단한 일인 것 같다. 2) 다양한 옷을 입은 네 명의 남자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두 손을 들고 두 발을 방방 뛰며 기뻐하고 있다. 목도리, 모자 등 옷차림으로 보아 추운 겨울인 것 같다. 3) ① 옆에 있는 친구와 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학년에 상관없이 서로 이어질 수 있는 학교 ②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닌 모두가 주역이 되는 학교
2쪽	1) ②, ③, ①, ⑤, ④ 2) ㉠ : 단도직입, ㉡ : 박장대소, ㉢ : 용기백배
3쪽	1) ②, ④, ①, ⑤, ③ 2) ㉠ : ㉡, ㉡ : ㉠
4쪽	1) 무시당하고, ‘나’를 깔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수 없고, ‘나’에게 도전장을 내미는데 도망칠 수 없음. 2) 누구든, 어떤 녀석이든, 학교 어딘가에 자신이 있을 곳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이 되어야 함.
5쪽	1) ② 어차피 할 거면 이기기 위해 싸울 것이고, 선거 운동하는 시늉만 내고 돈을 받는 것은 ‘나’의 성격과 맞지 않음. ③ 하지만, 이런 사정을 순진하게 연설에서 솔직히 말할 수는 없음. 2) 라이타는 마키노랑 완전 달라서 재미있고, 엉망진창이다.
6쪽	1) 아마, 저도 모르게 ‘손!’ 하고 장난치고 싶은 반려동물 같은 느낌일 것이다. 2) (예시답안) 라이타는 학교를 바꿔 보자는 신도 형의 말에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구나. 하지만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행이야. 아침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학교를 조금씩 바꿔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7쪽	1) (가) 신도 형 : 학교에 가는 게 즐겁고, 학교가 신나는 곳으로 바뀔 수 있으며, 그 주위에 사람들이 즐겁게 몰려드는 사람. / (나) 마키노 : 그냥 장식일 뿐이고, 선생님들이 결정한 걸 신속하게 그대로 추진해 나갈 뿐이며, 걸만 번드르르한 잡무 담당 2) (가) : ‘나’는 칭찬에 익숙하지 않는 탓인지 신도 형의 말에 몹시 불편했다. (나) : ‘나’는 마키노의 말에 놀라서 말을 더듬거렸으며 질문으로 반격에 나섰다.
8쪽	1) ② 친구를 위해서 날마다 여기에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③ 함께 웃고, 울고, 화내고, 장난치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함 2) 조용한 곳에서 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하는 것.
9쪽	1) (가) 마키노 : 학교는 배우고 경험하는 곳 / (나) ‘나’(라이타) : 학교는 즐거운 곳 2) (예시답안) 나는 마키노의 연설 내용을 지지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컴퓨터와 외국어를 배워야 하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배워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제안한다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